

# 鼻炎 患者에 關한 臨床的 觀察

李 承蓮·朴 東一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폐계내과학교실

= Abstract =

## A clinical study on the patients with Rhinitis

Sung-Yeon Lee, O.M.D.

Dong-Il Park, O.M.D., Ph.D.

The clinical study was done as a preliminary to treat Rhinitis with oriental medicine.

We analysed 73 patients with sneezing, nasal discharge and nasal obstruction, who had visited Dept. of Internal Medicine,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Dongui University from Jan, 1, 1993 to Dec, 31, 1993.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1. In the sex ratio, man was higher than woman as 2.31:1 and in age distribution, below 10s was the top as 30.14%
2. In duration of history, over one year was the top as 64.38%
3. The most complained symptoms were nasal discharge and nasal obstruction as 94.52%
4. In the frequency of treatments, the cooler season was more than the warmer season
5. In the treatments of Medi-acupuncturer, most of acupuncture therapy was done less than 5 times and Seonotanggami was most used in prescriptions.
6. In the case of applying to Seonotanggami, nasal discharge was the most relieved symptom.

**【Key words】** Rhinitis, Nasal discharge, Nasal obstruction, Acupuncture therapy

## I. 緒 論

鼻炎이란 鼻粘膜의 炎症을 뜻하며, 그 原因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 즉 알레르기성과 非알레르기성 및 感染性 鼻炎으로 區分할 수 있다<sup>2)</sup>. 알레르기성 鼻炎은 吸入한 알레르기성 物質(抗原)이 鼻粘膜에 接觸하여 免疫反應을 일으킴으로 하여 생기는 疾患<sup>6)</sup>을 말하며, 抗原을 證明할 수 없는 鼻炎을 非알레르기성 鼻炎이라 하는데, 血管運動性 鼻炎이라고도 稱하며,<sup>1, 4, 9)</sup> 感染性 鼻炎이란 Virus 등이 原因이 되어 나타나는 一般感氣를 말한다<sup>1)</sup>. 또한, 鼻炎은 그 經過에 따라 急·慢性 鼻炎으로 나누기도 한다<sup>2)</sup>.

鼻炎의 主要症狀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비내 소양감 전신쇠약감 등이 있으며, 韓醫學의으로는 噴嚏, 鼻流涕, 鼻塞, 鼻淵, 鼻鼈, 鼻窒, 鼻中水出, 鼻竅不利 등의 범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0, 11, 12, 14, 16)</sup>.

産業社會로 접어들면서 大氣, 水質 등의 環境汚染이 심각해짐에 따라 人體에 가해지는 각종 外部 刺戟 因子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코는 外部 刺戟에 그대로 露出되어 있는 까닭에 갖가지 症狀들이 誘發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噴嚏, 鼻流涕, 鼻塞症 등의 비염증상을 호소하는 患者들이 늘어가고 있는 趨勢로서 그 치료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研究者는 鼻炎 患者 治療策 마련을 위한 事前 作業으로 實際 臨床에서의 樣相 및 實態를 把握하고자 본 作業에 착수하였다. 1993年 1月 1일부터 1993年 12月 31日 사이에 東義大學校 附屬韓方病院 5內科에 내원한 患者 중에서 噴嚏, 鼻流涕, 鼻塞感 등을 主訴로 하는 73例에 관해 調査, 分析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對象 및 方法

#### 1-1. 對象

1993年 1月 1일부터 1993年 12月 31日까지 만 1年間 東義大學校 附屬韓方病院 5內科에 來院한 外來 患者 중 噴嚏, 鼻流涕, 鼻塞感 등을 呼訴하는 73例 調査 對象으로 하였다.

1-2. 觀察 方法

患者 73例의 年齡, 性別, 病歷期間, 月別 診療받은 頻度數, 自覺症狀, 鍼術治療 回數, 使用處方 및 使用 期間, 最多 使用 處方に 대한 反應 等に 關하여 調查, 分析, 觀察하였다.

2. 成績

2-1. 初診時 年齡 및 性別

性別 分布를 보면 男子가 51名, 女子가 22名으로 男女比는 2.3:1로 男子가 많았 으며, 年齡 分布에서는 9歲 以下가 22名, 30.14%로 가장 높았다.

표 1.

年 齡	男 子	女 子	總 計 (%)
0~9	19	3	22 (30.14)
10~19	8	4	12 (16.44)
20~29	8	2	10 (13.70)
30~39	10	9	19 (26.03)
40~49	1	2	3 (4.11)
50~59	4	1	5 (6.85)
60이상	1	1	2 (2.74)
總計	51	22	73 (100)

2-2. 病歷期間

病歷期間은 1年 以上이 男女 總 47名, 64.38%로 이고, 3個月 以下는 9명으로 12.33%였다.

표 2.

病歷 期間	男 子	女 子	總 計 (%)
3個月 以內	5	4	9 (12.33)
1年 以內	13	4	17 (23.29)
1年 以上	33	14	47 (64.38)
總 計	51	22	73 (100)

## 2-3. 自覺症狀

自覺症狀 중에서는 鼻流涕와 鼻塞感이 94.52%로 가장 높았고 噴嚏가 89.04%로 그 다음이었다. 이외의 自覺症狀으로는 頭痛이 24.66%로 가장 높았고, 消化障礙가 20.55%, 全身衰弱感이 17.81% 순이었다.

표 3.

自覺 症狀	患者數	比率 (%)
鼻流涕	69	94.52
鼻塞	69	94.52
噴嚏	65	89.04
頭痛	18	24.66
消化障礙	15	20.55
全身衰弱感	13	17.81
呼吸困難	8	10.96
皮膚炎	8	10.96
耳鳴, 耳塞感	8	10.96
咽痛	7	9.59
眼球乾澀	7	9.59
咳嗽	5	6.85
鼻衄	4	5.48

## 2-4. 月別 診療 頻度數

1年間 總 診療 頻度數는 247回였는데 2月이 51回(20.65%)로 가장 많았고, 3月이 29회(11.74%), 11月이 27回(10.93%) 순이었으며 6月이 4회(1.62%)로 가장 적었다.

표 4.

月	頻度數	比率 (%)
1	24	9.72
2	51	20.65
3	29	11.74
4	13	5.26
5	6	2.43
6	4	1.62
7	7	2.83
8	18	7.29
9	21	8.50
10	24	9.72
11	27	10.93
12	23	9.31
總計	247	100

2-5. 鍼術治療 回數

73例 중 57.53%에 該當하는 42名이 鍼術治療를 받았는데, 鍼術治療를 받은 回數로는 5回 以下가 가장 많아서 23名으로 總 鍼術治療 받은 患者의 54.77%를 차지했다. 한편, 16回 以上の 施術을 받은 경우도 9.52%에 이르렀다.

표 5.

治療 回數	患者 數	比率 (%)
5回 以下	23	54.77
6~ 10	12	28.57
11~15	3	7.14
16回 以上	4	9.52
總 計	42	100

2-6. 治療處方 및 使用期間

73例 중 84.93%에 該當하는 62名의 患者가 藥을 服用하였으며, 使用된 治療 處方으로는 仙烏湯加味가 39回(6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補中益氣湯이 8回(12.90%), 麗澤通氣湯과 二陳湯加味가 各 3回(4.84%) 순이었다. 그리고, 藥物 服用期間은 1個月 以內가 61.29%로 가장 많았다.

표 6.

使用 處方	使用 期間			統計 (%)
	10日 以下	1個月 以下	1個月 以上	
仙烏湯加味	10	23	6	39 (62.90)
補中益氣湯	2	6		8 (12.90)
麗澤通氣湯		3		3 (4.84)
二陳湯加味	2	1		3 (4.84)
通竅湯	1	1		2 (3.23)
六鬱湯	1	1		2 (3.23)
香砂平胃散	2			2 (3.23)
十全大補湯		1		1 (1.61)
歸脾湯		1		1 (1.61)
六味地黃湯		1		1 (1.61)
總 計	18(29.08)	33(61.29)	6(9.68)	62 (100)

cf)小青龍湯 Ex. 12( 5.17%, 1個月 以下)

## 2-7. 最多 使用 處方에 대한 反應

73例 중 仙烏湯加味를 가장 많이 使用하였으며 仙烏湯加味를 投與했던 患者에서 주로 呼訴했던 鼻流涕, 鼻塞感, 噴嚏에 관한 反應을 살펴보면 鼻流涕에 대한 反應이 가장 좋았고 (良好 13.2%, 好轉 60.5%), 噴嚏에 관한 反應이 가장 낮았다(良好 6.6%, 好轉 46.7%, 反應 없음 46.7%).

표 7.

反 應 自覺 症狀	患者數(%)	良 好(%)	好轉(%)	反應 없음(%)
鼻流涕	38	5 (13.2)	23 (60.5)	10 (26.3)
鼻塞感	36	3 (8.3)	20 (55.6)	13 (36.1)
噴嚏	30	2 (6.6)	14 (46.7)	14 (46.7)

cf) 良好 : 거의 完全히 自覺症狀 消失

好轉 : 完全히 消失되지는 않았으나 效果가 있음

反應 없음 : 投藥 前後의 變動이 없음

## Ⅲ. 總括 및 考察

噴嚏란 鼻腔內가 가려우면서 氣가 噴出할 때 소리가 나는 것<sup>6, 7, 9, 13, 20, 21, 22)</sup>으로, 陽氣가 和利하고 心에 充滿하며 鼻로 出하여 되는 것이다<sup>7, 8, 13, 18)</sup>. 鼻는 肺의 竅가 되고 痒症은 火가 변한 것이므로 이는 火가 金을 乘하여 病이 된 것인데<sup>6, 7, 9, 13, 19)</sup>, 주로 外感風寒에서 많고<sup>3)</sup> 心火나 邪熱이 陽明經에 鬱滯되어 發한다<sup>6, 7, 9, 13)</sup>. 神經學的으로는 鼻粘膜에 分布하는 三次神經, 翼口蓋神經이 異物이나 寒氣, 惡臭 등에 의해 刺戟되면, 그 刺戟은 舌咽, 迷走, 橫膈膜神經에 傳達하고 이들 神經이 支配하고 있는 筋肉이 興奮되므로 재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sup>4, 9)</sup>, 이는 코에서의 刺戟에 의해 생기는 爆發的인 呼氣가 主體가 되며, 氣道에서 異物質을 除去하려는 防禦反應이라 할 수 있는데 알레르기성 鼻炎이나 急性鼻炎에서의 特徵的인 症狀이다<sup>6)</sup>.

鼻流涕란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sup>10, 11)</sup>을 말하는데, 韓醫學的으로는 外感風寒邪가 腦와 肺에 侵犯하여 腦冷肺寒<sup>9, 17)</sup>하거나 體質虛弱 및 皮毛의 元陽이 있는

元氣가 虛弱해졌을 때<sup>10, 13, 17)</sup>, 水樣性 鼻漏가 나타나게 되고 또, 皮膚의 溫度가 適當하지 못하면 겨울철에 噴嚏와 水樣性 鼻漏가 나타나기 쉽다고 하였다<sup>9, 20)</sup>. 正常的인 鼻粘膜에서는 늘 少量의 粘液이 分泌되어 鼻腔의 濕氣를 保存하고 있으나 病的으로는 分泌過多 또는 分泌減退의 症狀이 나타난다. 分泌過多는 그 分泌物에 따라서 水樣性, 粘液性, 膿性, 血性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이 混合해서 나오는 수도 있다.

水樣性 鼻漏는 올 때, 急性 鼻炎의 初期, 血管運動性 鼻炎, 코 알레르기 등에서 볼 수 있다<sup>4, 10)</sup>.

鼻塞症은 鼻病의 한 症狀을 表現한 것으로서 鼻痔, 鼻息肉 등과 같은 鼻內癰腫 뿐만 아니라, 肺寒 風熱 外傷 痰火內逆 등도 鼻塞을 일으키며, 鼻淵, 鼻淵, 鼻衄, 鼻酸, 酒醴鼻와 같은 鼻部 疾患에도 역시 鼻塞症이 있다<sup>17)</sup>.

噴嚏, 鼻流涕, 鼻塞感 등의 症狀은 急性 鼻炎, 알레르기성 鼻炎, 血管運動性 鼻炎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急性 鼻炎에서는 一般的으로 發熱, 惡寒 등의 感染症狀이 同伴되는데, 本 調査 例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大部分이 알레르기성 鼻炎이나 血管運動性 鼻炎으로 생각되며 實際 調査중 30例가 病院에서 알레르기성 鼻炎이란 診斷下에 來院하였었다.

本 考察에서 觀察한 73名 患者들의 男女 構成 比率을 보면 男子가 51名, 女子가 22名으로 2.3배정도 男子가 많고, 가장 많은 頻度를 차지하는 年齡層은 0歲에서 9歲 사이였으며 특히 이 年齡層에서의 男女 比率은 男子가 19名, 女子가 3名으로 6.3배 정도 男子가 많았다. 이는 알레르기성 鼻炎의 發病이 10歲 以下에 있어서 男子가 많다<sup>6)</sup>는 내용에 부합된다.

病歷期間을 살펴보면 1年 以上된 患者가 男女 總 47名으로 全體 患者 중 64.38%를 차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4~5년 정도였고 10年 以上이나 되는 경우도 6例 정도 있었다. 그리고 3個月 以內는 9名으로 12.33%를 차지했다. 이는 이 疾患 自體가 外部 刺戟 因子에 의해 誘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原因이 되는 誘發因子 自體를 완전히 遮斷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慢性的으로 反復 再發되기 때문이며 또한, 大多數의 患者들이 一般 韓醫院이나 病, 醫院에서 1次 診療를 받은 후 來院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實際 來院 患者 중 約 70%에 該當하는 52名의 患者가 來院 당시 韓醫院 및 病醫院에서 治療를 받고 있거나, 받은 經驗이 있다고 하였다.

自覺 症狀으로는 噴嚏, 鼻流涕, 鼻塞感 등은 거의 모든 患者들이 呼訴하였는데, 주로 아침 起床時에 심해진다고 하였으며 이 중 鼻流涕와 鼻塞感이 94.52%로 가장 많았고, 噴嚏가 89.0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나 發病後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재채기는 減少되는 傾向을 띠게 된다<sup>4, 14)</sup>는 것과 符合되었다. 이 외로는 頭痛이 24.66%, 消化障礙가 20.55%, 全身衰弱感이 17.81% 순이었고 呼吸困難, 皮膚炎, 耳鳴, 耳塞感, 咽痛, 眼球乾澀, 痰嗽, 鼻衄 등이 있었다.

이 중 頭痛, 眼球乾澀, 鼻衄 등은 주로 알레르기성 鼻炎이나 副鼻腔炎에서 많이 同伴되는 症狀들이며 消化障礙나 全身衰弱感은 오랜 罹患 期間으로 인해 나타나는 症狀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하나의 알레르기 病에 걸린 사람은 다른 알레르기 病에도 걸리기 쉬운데<sup>12)</sup>, 알레르기성 鼻炎이라는 診斷下에 來院한 30例 중 1%에 該當하는 3例가 알레르기성 皮膚炎을, 1.3%에 該當하는 4例가 알레르기성 喘息을 同伴하고 있었다.

月別 診療 頻度數를 살펴보면 2월이 20.65%로 가장 많고, 3월이 11.74%, 10월이 10.93% 순이었다. 全般的으로 살펴보면 換節期로 氣候變動이 심한 2,3월과 10,11월이 높고 또 濕熱한 여름철보다는 寒冷乾燥한 겨울철에 診療 頻度數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鍼術 施術回數와 藥物 服用 回數를 살펴보면 鍼術을 받은 患者가 總 42名으로 57.53%에 該當하고, 藥을 服用한 患者는 總 62名으로 84.93%에 該當하여 藥物 服用의 경우가 높았다. 이는 鍼術治療를 원하는 患者에 있어서는 직접 針灸科로 來院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小兒 患者의 比率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때 鍼을 施術하기가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던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때 施術된 經穴자리는 百骸, 神庭, 印堂, 迎香 (左·右 2穴)의 5개혈이었다.

使用處方 중 가장 많은 頻度를 차지한 것은 仙烏湯加味였으며 이는 白何首烏 三錢, 地骨皮·附子·官桂 各 二錢, 杜冲·烏藥·牛膝 各 一錢, 黃栢·甘草 各 五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胃濕·腎寒·肺熱로 인한 鼻燥, 咽乾, 下厥上冒에 清上, 通中, 溫下<sup>5)</sup>를 目的으로 하는 處方이다.

그 다음으로는 補中益氣湯, 麗澤通氣湯, 二陳湯加味, 通竅湯 순이었고 Extrate 製劑로서는 小青龍湯이 12例, 5.17%정도 使用되었다.

가장 많이 使用된 處方인 仙烏湯加味에 대한 反應을 살펴보면 總 73例 중 39例에 投與되었는데, 鼻流涕에 있어서는 이를 呼訴한 38例 중 5名(13.2%)에서



良好, 23名(60.5%)에서 好轉, 反應 없음이 10名(26.3%)로 순으로 반응이 나타났고, 鼻塞感에서는 總 36例 중 良好가 3名(8.3%), 好轉이 20名(55.6%), 反應 없음이 13名(36.1%) 순이었고, 噴嚏에 있어서는 總 30例 중 良好가 2名(6.6%), 好轉이 14名(46.7%), 反應 없음이 14名(46.7%) 순이었다.

處方 使用期間은 1個月 以下가 61.29%로 가장 높았으며 1個月 以上은 6例, 9.68%에 不過했다. 病歷期間이 1年 以上인 경우가 많고 再發이 頻繁한 것을 考慮해 볼 때 상당히 짧은 期間이라 할 수 있다. 이는 患者의 經濟的 與件, 長期間 鬪病에 의한 患者의 忍耐力 不足 및 治療에 대한 切實性的 缺如, 服藥의 不便함 등에서 緣由된 것으로 생각된다.

#### IV. 結 論

1993年 1月 1日부터 1993年 12月 31日까지 1年동안 東義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5內科에 來院한 患者 중 噴嚏, 鼻流涕, 鼻塞感을 呼訴하는 73例를 調查, 分析, 觀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初診時의 性別 및 年齡 分布에서는 男子가 51名으로 69.87%, 女子가 22名으로 30.13%로 男女 性比는 2.31:1으로 男子가 높았고, 0歲에서 9歲사이의 年齡層이 22명, 30.14%로 가장 많았다.
2. 病歷期間은 1年 以上이 47名으로 64.38%로 가장 많았다.
3. 自覺症狀으로는 鼻流涕, 鼻塞感이 69名, 94.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噴嚏로 65名, 89.04%였다. 이 외로는 頭痛이 18名으로 24.66%, 消化障礙가 15名으로 20.55%, 全身衰弱感이 13名으로 17.81%순이었다.
4. 月別 診療 頻度數로는 2月이 51回, 20.65%로 가장 높았고, 3月에 29回로 11.74%, 11月에 27回로 10.93% 순이었고,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診療 頻度數가 많았다.
5. 鍼術治療에 있어서는 總 來院 患者 중 57.53%에 該當하는 42名이 治療를 받았으며, 診療回數로는 5回 以下가 23名, 54.77%로 가장 많았다.
6. 藥物 療法에 있어서는 總 來院 患者 중 84.93%에 該當하는 62名이 服藥했으며 仙烏湯加味가 39名, 62.90%로 가장 많았고, 補中益氣湯 8名, 12.90%, 麗澤

通氣湯과 二陳湯加味が 各 3名으로 4.84% 순이었으며, 處方 使用 期間은 1個月 以下가 38名, 61.29%로 가장 많았다.

7. 最多 使用 處方인 仙烏湯加味에 대한 反應으로는 鼻流涕에서는 總 38名 中 良好가 5名(13.2%), 好轉이 23名(60.5%), 反應 없음이 10名(26.3%) 순이었고, 鼻塞感에서는 總 36名 中 良好가 3名(8.3%), 好轉이 20名(55.6%), 反應 없음이 13名(36.1%) 순이었고, 噴嚏에서는 總 30名 中 良好가 2名(6.6%), 好轉이 14名(46.7%), 反應 없음이 14名(46.7%) 순이었다.

## 參 考 文 獻

1. 康秉秀, 韓方臨床 알레르기, 서울, 成輔社, 1988. pp.83-89.
2. 康晰榮, 알레르기 疾患의 臨床과 實際, 서울, 一潮閣, 1988. pp.176-182.
3. 金定濟, 診療要鑑,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74. p.388.
4. 白萬基, 最新耳鼻咽喉科學, 서울, 一潮閣, 1992. pp.192-195.
5. 李圭峻, 醫鑒重磨, 부산, 1989. p.146 (李元世 필사본).
6. 丁奎萬, 알레르기와 韓方, 서울, 第一路, 1990. pp.89-97, 142-148, 271-291.
7. 蔡炳允, 韓方眼耳鼻咽喉科學, 서울, 集文堂, 1989. pp.245-248
8. 洪元植 譯,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58.
9. 김윤범. 蔡炳允, 噴嚏, 鼻流涕, 鼻塞症 등을 隨伴한 患者에 對한 臨床的 觀察, 서울, 大韓韓學會誌, vol.14, no.2, pp.162-167, 1988.
10. 金憲靜.蔡炳允, 鼻流涕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 서울, 大韓韓方外官科學會誌, vol.2, no.1, pp.63-71, 1989.
11. 朴東一, 鼻淵의 原인과 症狀에 關한 文獻的 考察, 부산, 東義論集, 第17輯, pp.169-174, 1989.
12. 裴元植, 알레르기성 鼻炎의 治療와 豫防, 서울, 大韓韓學會誌, vol.11, no.2, pp.16-17, 1990.
13. 신경숙. 노석선, 荊芥蓮翹湯加味が 알레르기성 鼻炎에 미치는 效能에 對한 臨床報告, 대전, 憲和醫學, vol.1, no.3, pp.185-196, 1994.
14. 下泰堯, 알레르기성 鼻炎에 關한 文獻的 考察, 부산,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過程 第1期 中間發表, 1992.

15. 韓尙舜, 韓方醫療에 對한 住民의 認識度, 대구, 慶山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16. 洪翼杓·蔡炳允, 鼻塞症의 原因에 對한 文獻的 考察, 서울, 大韓韓方外官科學會誌, vol.2, no.1, pp.55-62, 1989.
17.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上海, 上海人民衛生出版社, 1983. p.264.
18. 王肯堂, 六科證治準繩,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456.
19. 劉完素, 劉河間三十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p.275-276.
20. 李杲, 東垣十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5. p.387.
21.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01.
22.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482.